

LUXURY

JUNE 2015



음악과 미술, 패션의 만남

Summer Beauty

덴마크의 신진 리빙 디자이너 7

Jewels for Women

Dior

INDUSTRIAL ART

톱날 제작기계와 지하 매설 케이블 피복 등 산업화의 유물들을 작품의 '주재료'로 삼는 설치 조각전이 열린다.

인도 현대미술 2세대 <탈루 L.N. : 임계점> 철판이 어지럽게 걸려 있고 한쪽에는 톱날을 만드는 기계가 불꽃을 튀기며 작동한다. '톱날 기계'를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인도 현대미술 작가 탈루 Tallur L.N.이다. 그의 작품 '임계점Threshold'은 미국 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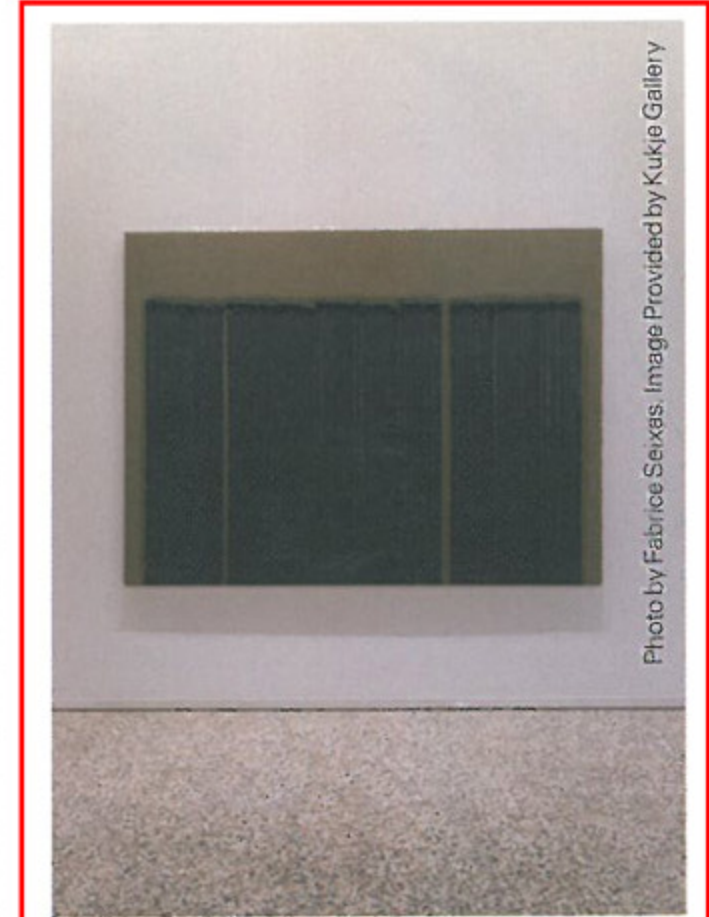
게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을 준다면, 나는 그중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쓰겠다"는 말에서 모티프를 얻어 완성했다. 도축용 칼로 만든 손잡이와 사람의 머리 형상을 붙인 2m 높이의 종 '할랄'도 인상적이다. 수보드 굽타, 바르티 바티커 등 인도현대미술을 꽃피운 1세대의 다음 주자로 가장 먼저 꼽히는 탈루 L.N.의 개인전이 6월 28일까지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에서 열린다. 2012년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젊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스코다 상을 수상하기도한 그의 작품 11점을 통해 인도 현대미술의 미래를 살펴보길. 문의 541-5701

케이블 피복으로 엮은 조각 <니나 카넬 : 새틴 이온>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웨덴 작가 니나 카넬 Nina Canell, 작년 한 해만 스톡홀름 현대미술관과 런던 캠든 아트센터에서 모두 개인전을 열었을 정도로 유럽이 주목하는 젊은 작가다. 현대사회 속 다양한 물성에 대해 탐구해온 그의 신작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다. 무선인터넷과 와이어리스가 보편화된 시대, 버려진 지하 매설 케이블 피복을 수집해 다양한 조각을 완성했다. 이밖에 초음파 발생기를 물속에 넣어 기포가 발생하도록 두고, 그 옆에 시멘트 포대를 설치해 시멘트가 서서히 굳는 과정을 관찰하는 '상동곡Perpetuum Mobile' 등 과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5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아르코미술관. 문의 760-4606

Art

단색 유색에 기자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단색화>

김환기, 권영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등 한국 단색화 운동 대표 작가들의 주요 작품 70여 점이 베네치아에 모였다. 국제갤러리가 후원한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중 하나로 15세기 초 르네상스 양식을 따른 유서 깊은 건축물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Palazzo Contarini-Polignac 궁전 곳곳에 한국 현대미술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단색화들을 배치했다. 성 내부 전층을 포함해 옥외 공간까지 활용

했는데 역사적인 공간과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8월 15일까지. 문의 735-8449



현대미술의 가장 세련된 재료, 빛 <은밀하게, 황홀하게 :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

빛을 주제로 한국, 프랑스, 미국, 독일, 대만, 이탈리아 등 8개국의 31팀이 모여 설치미술부터 사진,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회화, 영상 등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가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시각예술의 근원인 빛과 색의 의미를 풀어간다. LED와 혼합 재료를 사용해 거대한 '빛 큐브'를 완성한 이상진 작가의 라이팅 토크,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윈이 자작나무 합판으로 원을 만든 뒤 그 안에 전구와 사람 미니어처를 넣어 그림자 효과를 낸 '그린 룸', 듀오아티스트 하이브가 LED로 구현한 나무 라이트 트리 : 인터랙티브 댄 플래인', 박정기 작가의 실험 영상 '말레비치 보기 20초' 등 한국 젊은 작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무용가 김모든-김혜경-정보경 등이 각각 공연을 선보이고, 라이브 페인팅, 그림자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문의 3407-3500